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2월(제7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홍콩에서 만나는 오이타의 음식과 술!  
 오이타 페어 in 홍콩 개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한 달간 홍콩에서 '오이타 페어'가 열렸습니다. 이번 페어는 루이 와이쿱(呂惠光) 오이타현 해외 친선 대사가 운영하는 회사 '벳푸 집단(別府集団)'과 연계하여 개최한 것으로 오이타 와규(소고기), 가보스(감귤류 과일), 방어 등 오이타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와 술을 기간 한정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홍콩 여행사를 초청하여 오이타현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오이타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기간 한정 메뉴를 시식하는 관광 홍보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방어 초밥, 벳푸 집단, 행사의 모습  
(오른쪽) 가보스와 방어, 오이타의 술

구니사키시 민관 합동 교육 문화 국제 교류 사업   
 세계 꿈 한 글자 콘테스트 구니사키시



올해로 제15회를 맞는 '세계 꿈 한 글자 콘테스트'는 "구니사키시 민관 합동 교육 문화 국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붓글씨 실력과 더불어 '얼마나 꿈을 표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콘테스트의 취지는 <①아이들의 학습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 줄 힘을 기른다> <②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스스로 생각한 목표를 표현한다> <③구니사키 반도와 오이타현을 안다> 입니다.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2월~1월에 응모가 가능하며 올해도 많은 분이 응모해 주셨는데요(※2021년 4,655점 응모), 모든 작품은 '로쿠고 만잔 후타고지 절(六郷満山両子寺)'에서 "꿈 실현 기원제"를 지내고 입상 작품은 구니사키 시내의 모든 초·중·무 교육 학교에서 전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한 글자'에 담아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타고지 절 "꿈 실현 기원제"의 모습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2월(제7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너무너무 유명한 이곳은 오이타현 유후인입니다!

## 유후인 관광지 소개 유후시 由布市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유후인’과 ‘벳푸’가 “오이타현”의 관광지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 오사카, 도쿄 등과 같이 대도시가 아님에도 일본 여행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라 ‘이렇게 대단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웃음). 그만큼 이미 인터넷에 정보가 가득하지만 오늘은 ‘일본어로 검색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1. 유노쓰보 거리 유료 관광 시설(일부) 2. 긴린코 호수의 단풍 3. 쓰지 마차 탑승 후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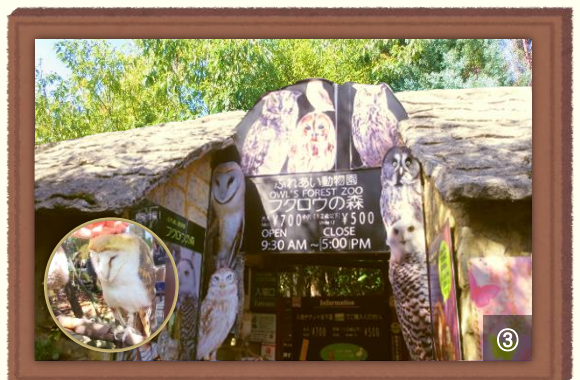
JR 유후인역과 가까운 ‘유노쓰보 거리(湯の坪街道)’에는 먹거리 판매점, 잡화점, 식당 등이 준비되어 많은 이들이 닭튀김, 크로켓 등을 먹으며 거리를 구경하곤 한다. 만약 당신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동물과 교감하며 유후인을 만끽하고 싶다면 일본의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사진가 ‘스기모토 히로시’의 작품을 볼 수 있는 <①코미코 아트 뮤지엄 유후인(대인 1,700엔)>을 방문하거나, 영국 코츠월드의 마을을 재현한 종합 상업 시설 ‘플로랄 빌리지’ 내의 <②체서 고양이의 숲(대인 800엔)>과 <③부엉이의 숲(대인 700엔)>에서 직접 동물을 만져보는 체험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③은 평소에는 보기 드문 부엉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코미코 아트 뮤지엄 유후인’에 전시 중인 작품 <Your Dog> -YOSHITOMO NARA-



플로랄 빌리지 내에 있는 고양이 카페 ‘체서 고양이의 숲(チェンヤ猫の森)’



플로랄 빌리지 내에 있는 부엉이 동물원 ‘부엉이의 숲(フクロウの森)’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2월(제7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金鱗湖

긴린코 호수



유노쓰보 거리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유후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긴린코 호수(金鱗湖)'에 다다른다. 일본 메이지(明治) 시대의 유학자 '모리 구소(毛利 空桑)'가 호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비늘이 노을빛에 반사되어 금색으로 보인다고 하여 '금색 비늘의 호수'라는 뜻의 '긴린코'라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맑은 물과 온천수가 섞여 있어 온도 차로 인해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특히 유명하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물안개는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①매년 10월~3월 ②오전 9시 이전 ③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 ④전날 밤과의 온도 차가 클 때 보다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날에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므로 유후인에 머문다면 이른 아침에 호수를 산책하며 물안개를 볼 것을 추천한다(만약 보지 못하더라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새 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산책해 보자).

또한, 일본 내에서 단풍 명소로도 유명하여 단풍철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더불어 많은 일본 국내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긴린코를 포함한 유후인 지역의 단풍 절정 시기는 보통 10월 말~11월 초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취재를 위해 방문한 날은 11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단풍이 아름다웠으므로 매년 변동이 있는 단풍 절정 시기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면 좋을 듯하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산을 등지고 있는 펜션 '도요노 쿠니(豊の国)'와 긴린코 호수



긴린코 호수에 가는 길목에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단풍나무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수면 위로 비치는 단풍나무 가지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2월(제7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観光辻馬車

관광 쓰지 마차



마지막으로 비교적 정보가 많지 않은 ‘쓰지 마차(辻馬車)’ 탑승 후기를 전하고자 한다. 3월~12월 초 무렵에 유노쓰보 거리를 관광하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이 마차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1975년에 오이타현 중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과장된 소문이 퍼지며 유후인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는데, 마을 사람들은 유후인이 건재함을 전국에 알리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고 마차는 그중 하나였다고 한다. 덕분에 ‘마차와 함께 살아가는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렇게 유후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이 마차는 JR 유후인역을 나와 오른쪽에 있는 ‘유후인 관광객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당일 예약하여 탑승할 수 있다(※탑승 요금 : 성인 2,200엔/어린이 1,650엔). 단, 말의 컨디션이나 날씨에 따라 운행하기에 운행 시간은 당일에만 알 수 있으며 사전 예약 또한 불가하므로 유의하자. 탑승 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JR 유후인역을 출발하여 ‘붓산지 절’-‘우나기히메 신사’를 들르는데, 그동안 동승한 마부로부터 유후인에 관한 이야기(일본어)를 들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더욱 만족스러웠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후인이지만 남들이 가는 관광지가 아닌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은 당신에게 오늘의 기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을 즐기든, 동물을 만나든, 마차를 타든 분명 특별한 추억이 될 테니 말이다.



유후인 마을을 달리는 쓰지 마차와 유후다케 산의 모습



붓산지 절(佛山寺) : 유후다케 산의 신앙 장소로서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사원



우나기히메 신사(宇奈岐日女神社)  
: 삼나무에 둘러싸인 약 1만 평 부지의 신사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 (pu-no314@pref.io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2월(제78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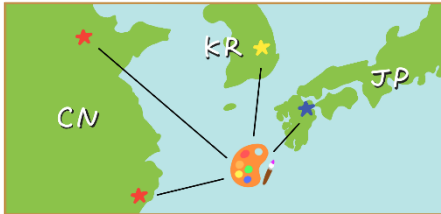
22화

### <특집> 동아시아 문화도시.2

- 완 -



한국은 경주시, 일본은 오이타현,  
중국은 지난시·원저우시가 선정되어  
1년간 문화예술 교류를 하게 됐는데



지금의 나를 만든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오이타에서 열리는게 만지지가 않았고  
난 이걸위해 여기서 일하게 된거구나, 싶었다.



사람들이 나처럼 교류의 즐거움을  
알수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서포트를 했고



교류 관련 등  
서류 번역



경주 출장  
(조각전 해외전시)



초등학교  
경주소개 특강

지난달 무사히 폐막식을 마치고나니  
안도감과 함께 조금은 섭섭한 기분도 들었다.

폐막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쨌든 정말 바쁜 한해였는데  
잘 해냈고 또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고

올한해

고생했다!!



나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 '나'처럼  
한중일 교류에 관심을 갖게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기를 - 하고 바라본다.

재미있겠다!

끝



관계자 앙갚음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도  
신선하고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